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추석 앞두고 다문화가정에 온정 전달

명절 맞아 지역 다문화가정에 기부금 전달...나눔과 상생 실천

영농도우미·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사회공헌활동 지속

- 최진 지사장 "소외 없는 지역사회 위해 나눔 이어갈 것"



진도지사, 추석 명절맞이 다문화가정 기부금 전달식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번 기부는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문화가정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뒀다.

진도지사는 그동안 농촌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써왔다.

이번 명절 기부 역시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살피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도지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최진지사장 #다문화가정지원 #추석명절나눔